

Dusk (임시 제목)

장 이름은 임시이고, 앞에 붙는 말들은 부 이름임.

목 차

Prelude One	7
Prelude Two	19
Prelude Three	29
Elevation One	37
Elevation Two	43
Elevation Three (미완성)	55

Prelude One

나는 늦은 오후 붉게 물들고 있는 하늘 아래 동네 골목 전신주 옆에 앉아 아스팔트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내 작은 발등을 다 떨어진 삼선 슬리퍼가 가리고 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아스팔트에서 떨어져 나온 자갈 덩어리가 흩어져 굴러간다. 발등이 간지럽다. 나는 고개를 들어 돌멩이 중 하나를 눈으로 쫓는다. 돌멩이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따라 부딪히고 튀어오르며 울퉁불퉁한 표면에 매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돌멩이를 끌고 갈 뿐이다. 돌멩이는 아무 저항도 비치지 못하고 건너편 전신주의 발치에 나 있는 귀퉁이 하수구로 빠지고 만다. 텅 하고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나는 녹이 슨 하수구 창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본다. 아스팔트가 붉게 빛났다.

적적하게 파란 봉고 트럭에 군밤과 군고구마를 팔던 밤 장수가 확성기를 걸어 놓고 장사를 접는다. 가로수가 늦가을 시린 바람에 몸을 떠다. 어리석게도 나무는 자신을 덮어주던 옷을 모두 떨쳐 벗어 버린다. 당장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더 큰 추위에 몸을 맡기게 된 꼴이구나.

트럭 위로 낙엽이 쌓이는 모습, 밤 장수가 차에 타 문을 닫는 모습 등을 나는 멍청하게 쳐다본다. 그때 무언가 차가운 게 눈을 확 덮는다.

“뭐 해?”

오늘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창백하고 여린 손을 눈가에서 슬며시 치워 놓으며 말한다.

“응, 그냥...”

“나 기다렸나?!”

그는 내 얼굴에서 손을 뺄 때며 물었다. 가디건 소매가 얼굴에 쓸린다.

“음? ...아니.”

사실 기다렸다. 추운 데 계속 앉아 있던 이유도 오늘 즈음이면 그가 여기로 나와 있을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다.

“기다렸으면서..? 아님 넌 여기 왜 있는데?”

나는 여전히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둘러댄다. 봉고차가 요란한 소리와 매연을 풍기며 떠났다.

“뭔가 음침- 하잖아?”

“그, 그런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니 유독 흘러내린듯한 눈뿔이 붉게 달아 올라 있었다.

“그런가는 무슨 그런가야. 또 울었네.”

“...티 나?”

그의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 앉았다.

“응... 티 나.”

그는 내 옆으로 와 쪼그려 앉고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시 해가 떨어지는 길바닥만 보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난 이 정적이 어색해서,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서, 마침내 정적을 깨고 무겁게 입을 뗐다.

“누나... 그런데 있잖아-“

“우리, 묻지 말자.”

누나는 처진 눈끝으로 어색하게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을 다시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굳이 해집지 마...”

누나는 천천히 팔장을 끼고 한숨을 내쉬더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텅 빈 웃음을 지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기가 대화를 끊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화제를 고민하다가 마침내 하나 생각해낸 눈치로 말을 꺼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한 달 전이네.”

시간이 그렇게나 지난건가.

“그땐 정말 어이 없었는데.”

“응, 난간에서 경치 좀 봤었지.”

나는 뭐라 답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누나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으나 떠오른 것이 없는지,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그 날의 이상한 기억을 강조할 뿐이었다.

“야경 이쁘더라”

”지금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

또 정적만이 남는다. 우리의 대화는 정적이 대부분이었다. 조금 뒤 누나가 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우린 왜 살까?”

DUSK (임시 제목)

“음… 그야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응?”

“왜 살아야 하냐는 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책에서, 수도 없이 듣고 봐 왔던 바로 그 정답을 말했다.

“행복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누나를 돌아봤다. 누나는 약하게 코웃음 했다. 그의 눈이 감기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

“있지, 나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가 않아.”

“…….”

“하지만, 그 동시에 그 현실이 피부에 바짝 와닿고 턱 밑까지 들어와서 숨이 막혀.”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내일이 빗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었다. 나에게 내일은 그냥 오늘 밤이 지나면 오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곱씹어보았다.

나는 행복한가? 내일이 있어 다행인가? 아니면 누나 말대로 내일은 영원한 저주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성장했다. 성장은 성숙이라는 착각과 동시에 행복이라는 것을 점점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나나 나나,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으로는 죽는 쪽이 낫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 아니, 왜 죽지 못할까? 내 생각은 여기서 그쳤다.

누나는 내 눈치를 보다가 내가 아무 말이 없는 듯하자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하하! 미안, 너무 내 얘기만 했네. 아직 너에 대해 아직 잘은 모르지만-”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가 사과를 하길래 얼른 말을 붙였다.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그런거야… 음, 우리는 왜 죽지 못할까 그런거.”

그는 등을 벽에 툭 기대며 기쁜 듯 살짝 웃었다. 그리고는 이제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

초저녁에 곧 꿈이 아직도 뇌리에 어렴풋이 남아 흩어지지 않는다. 오랜만에 어릴적 꿈을 꾸었다. 나는 바로 그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꽤 오래전, 누나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다. 아직 그가 한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바닥에서 승합차 뒷문에 달린 창으로 눈길을 옮겨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단 닥친 일에 집중해야 했다.

안개가 자욱이 내린 이른 새벽이다. 반쯤 폐허가 된 회사 건물이 큰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가 탄 차는 그곳으로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갔다. 차가운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더욱 창백한 색을 띠어 돋보이는 우리의 목표는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오늘 작은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하는 듯.

우리의 목표는 상호명이 SenCHK라고 되어 있는 회사 건물이었다. 주변에 깔린 파란 방수포에는 키릴로 ‘СЕНЧК’라고 쓰여 있었다. 이 회사는 꽤 이름 있는 IT 중소기업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조용히 서버실로 들어가 메인 서버 컴퓨터에 보관된 기밀 데이터를 빠르게 입수하는 것이었다.

“Everybody clear on each other’s code names?” (모두 서로의 코드명은 확실히 아는가?)

분대장이 조금 독특한 영어 억양으로 물었다.

“Yes, we are.” (그렇습니다.)

모두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Good. We are designated as Saturn element in this mission. I’m number 6, Alexander will be number 1, Steve will be 2, and Paul, you are number 3.” (좋아. 우리는 이번 임무에서 새턴으로 지정되었다. 나는 6번, 알렉산더는 1번, 스티브는 2번, 그리고 파울, 너는 3번이다.)

3번. 사실상 내가 후방이다. 내 역할이 선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압박감이 은근히 발밑에서 기어 올라왔다. 우리 팀은 이번 작전을 위해 급조되어 이를 전에 서로 간단한 소개를 마쳤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원들 중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본부에서는 단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어떤 곳이길래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보관 중일까? 기밀 데이터는 무슨 내용일까? 왜 하필 나 같이 경험 부족

한 요원이 이런 중요한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을까? 우리는 그 중 아무것도 알면 안 되었다.

우리가 탄 검은 승합차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조용히 옆길에 섰다. 1번인 알렉산더가 앞서 내렸고,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뒷사람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차했다. 찬 밤공기가 조출한 군장 안까지 파고 들었다. 내 뒤로도 두 명이 더 뛰어내려 재빨리 길 가쪽으로 붙었다. 회사 건물 앞 길가에는 잔해와 쓰레기와 뭔지 알 수 없는 찌꺼기와 파편이 굴러다녔다. 모두가 내리자 승합차는 차분한 엔진음을 내며 문을 닫고 떠나갔다. 우리는 건물 옆 뒷골목으로 빠져 길 앞쪽보다 훨씬 더럽고 난잡한 쓰레기장 쪽의 뒷문으로 향했다. 쓰레기장은 적어도 한 달은 방치된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검고 하얀 비닐 봉지, 종이 더미, 값싼 플라스틱 섬유로 만든 쓰레기 봉투와 바구니, 망가진 가구 등등이 낮게 흔들리는 덩불 주위로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었다. 그 뒤로는 내 키보다 1 미터는 더 커 보이는 콘크리트 담이 있었다. 담은 군데군데 파이고 깨져 성한 데가 없었다. 나는 팀원들을 따라 뒷문 쪽 벽으로 붙기 시작했다. 풀밭 속에서 풀벌레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먼치에 서서 혼자 빛을 내는 가로등 주위를 나방들이 쫓았다.

분대장이 조용히 PTT로 무전을 쳤다.

“Saturn 6 to TaComms, Saturn element arrival at AO.” (새턴 6이 본부에게, 새턴이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

검은색 후드 위에 플레이트 캐리어를 걸친 4명의 전투원은 좁은 철문짝 양 옆으로 늘어섰다. 문고리 쪽에 있는 알렉산더가 우리 쪽을 한 번 돌아본 후 서서히 문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스티브가 고개를 까딱 끄덕였다. 문이 조용히 열어젖혀졌다. 그 즉시 문고리 반대편에 서 있던 스티브가 허리를 기울여 내부를 경계했다.

“I see nothing for now.” (일단 보이는 건 없다.)

스티브가 속삭였다. 잠시 동안 고민하더니, 분대장은 플레이트 캐리어로 가려지지 않은 스티브의 어깨 안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스티브가 발을 높이 들고 문간 안으로 들어가 모퉁이 쪽으로 총구를 찼다. 나는 최대한 그에게 붙어 반대쪽 모퉁이를 확인한 후 전방으로 총구를 돌렸다.

“Saturn moving interior.” (새턴, 실내 진입.)

분대는 조용히 로비 안으로 흘러들었다. 로비는 코팅된 화강암 바닥에 프론트가 있는 소박한 구조였다. 내부 역시 분쟁의 풍파를 피하지 못한 것인지, 유리조각과 종이 뭉치가 처절한 대피의 현장을 흩뿌려 어지러웠다. 찬 밤 바람에 종이가 발 밑에서 들썩들썩 날아다녔다. 우리의 목표는 서버실. 다른 팀원이 자리를 잡고 주변을 경

계하는 동안,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층별 안내도를 빠르게 훑었다. 4층의 ‘сервер(서버)’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폈다.

4 |

Відділ інформаційної безпеки

Головна серверна кімната

짧은 러시아어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주 서버실’이라는 것은 유추하여 알 수 있었다. 아 나는 팀원들에게 손가락을 네 개 들어 보였다. 분대장이 계단통 문 쪽으로 손바닥을 흔들었다. 우리는 모두 비상계단 표시 아래 있는 문 앞에 섰다. 스티브는 몸으로 문을 밀어 열고 층을 겨누며 스산한 계단통으로 들어갔다. 그를 뒤따라 알렉산더, 분대장, 그리고 내가 차례대로 들어갔다. 스티브는 앞쪽을, 알렉산더는 위쪽 계단을, 분대장은 옆쪽을, 그리고 나는 옆과 뒤를 경계하며 조용하게 올라갔다. 계단통 속은 붉은색 비상등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 불길하고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계단통은 반 층계를 오른 후 뒤를 돌아 또 올라가야 한 층을 오르게 되는 구조였다. 오르면서 위쪽 후방이 위험하다는 의식은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팀원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긴장한 상태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오르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인 기밀 정보가 이곳에 있다는 정보는 우리 의뢰처밖에 알지 못한다고 들었다. 빠르게 진입하는 것 보다는 혹여나 들켜 내부 인원에 의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용히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한 층 한 층을 서서히 올랐다. 옷에 달린 절그럭거릴만한 모든 것들을 테이프로 발라냈기에 계단통에는 조용한 고무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묘한 긴장감이 땀돌았다. 금방이라도 경비나 일찍 행동한 다른 무장 인원과 만날 것만 같았다. 이 곳 모양을 보아 우리가 이 회사에 발을 들인 첫 무장 인원은 아닐 것이었다. 의뢰처는 대부분 신뢰하기 어렵다.

4층에 도착하자 스티브는 문 옆에 비껴선 뒤 몸무게를 실어 문을 밀었다. 그 옆에 선 나는 문이 열리자 층을 치켜들고 넓은 사무실을 훑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 한 손으로 층을 견착하고 다른 쪽 팔꿈치로 문을 잡은 뒤 층을 내 팔 위에 거치하고 주변을 확인했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내가 문간에 오래 있지 않도록 재빠르게 들어가 문쪽 벽에 늘어서 사무실을 경계했다. 나는 문을 놓고 나와 빈자리를 채우고 섰다. 문이 뒤에서 철컹 소리를 내며 조용히 닫혔다. 사무실에는 은은한 안내등과 고요한 배경 잡음만이 울려 머리를 흔들었다. 사무실 내부는 칸막이로 뿔뿔하게 나뉘어 있었다. 짐은 모두 빠졌고, 몇몇 자리에 의자나 컴퓨터 본체 등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품들만 남아있었다. 사무실 역시 바닥에 떨어진 각종 물건들로 난잡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저 멀리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켜져 있는,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보였다. 안쪽 벽은 유리가 아닌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서버 컴퓨터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곳이 주 서버실인 듯했다.

우리는 서버실로 향했다. 산개하여 걸으며 사무실 구역을 훑어 확인했다. 바닥에 켈라이트가 떨어져 빛을 내고 있었다. 최근에 이곳에 무장 세력이 방문했다는 것이다. 의뢰처에서는 이 회사 건물에 기밀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빛나가질 않는다. 모두 지나가며 켈라이트를 한 번씩 보고 갔다. 주위로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리는 서버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서버실은 밝지는 않지만 조명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미리 확보해 온 카드를 자동문 옆 인식기에 긁었다. 찰각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위잉 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우리는 선두를 교대하고 서버실로 진입했다.

진입하자마자 입구 쪽 은엄폐로 쓸만한 구조물들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다. 바닥에 핏방울 자국이 복도 안쪽 방향으로 주욱 나 있었다. 피의 양이 적은 것으로 보아 굵힌 상처거나, 운 좋게 총알이 어깨나 옆구리에 스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곳에 왔다 갔고 침입자 쪽이든 회사 쪽이든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리한 싸움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길게 늘어선 서버 컴퓨터 사이로 전진하는 찰나, 바스락 소리가 났다. 서버실 맨 끝, 양갈래로 꺾인 T자 복도의 보이지 않는 안쪽.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총을 소리 방향으로 겨누고 전진, 산개하여 엄폐했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알렉산더가 소리쳤다.

“We are armed! Come out with your hands up now!” (우리는 무장했다! 당장 손을 들고 나와 협조해라!)

한 10초 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경비원 한 명이 서버실 안쪽 꺾어진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떠밀려 나오듯 빠르게 나오더니, 복도가 교차되는 부분으로 나올수록 속도를 줄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알렉산더와 스티브가 총구를 들어 경비원을 겨눴다. 경비원은 양손을 치켜들어 보이며 다급히 소리쳤다.

“Стойте! Не стреляйте! Послушайте меня!” (잠깐만! 쏘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봐요!)

“Hands-Hands check. “ (양손 확인.)

“Не, не туда! Там внутри, слушайте-” (아니, 저기! 안에, 제 말 좀-)

우리는 꺾인 복도 쪽을 경계했고 알렉산더와 스티브가 경비원 쪽으로 붙었다. 알렉산더가 경비원의 무릎을 꿇리고 케이블 타이를 묶는 동안 스티브가 라이트를 켜고 경비원의 머리를 겨누었다. 나는 주변을 더욱 철저히 살폈다. 너무 큰 소리를 낸 우리는 이제 발각되었다.

우리는 총을 단단히 들고 복도 입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온 신경이 복도 입구로 집중되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떼어 전진했다. 내 총구 끝이 문가에서 미미하게 흔들렸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입구까지 다섯 발짝 정도 남은 그때, 탁 소리가 서버실 전체에 울려 퍼지더니 콘크리트 벽에 무거운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차 싶었다. 몸이 뻗뻗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순간 정신을 붙잡았다. 나는 위협을 소리쳐 알리며 벽 쪽으로 뛰었다.

“Grenade!” (수류탄!)

캉!

지척에서 짚고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다. 온몸의 살과 뼈가 푹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균형 감각을 잃은 나는 땅으로 엎어졌다. 이명과 함께 사방으로 튀는 파편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힘껏 밀어 몸을 뒤집었다. 팔을 힘겹게 움직여 몸 구석구석을 짚어 보았다. 다행히 뚫린 곳 없이 멀쩡했고, 떨어져 나간 것도 없었다. 고개를 들어 경비원 쪽을 보았다. 그를 보자마자 본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유혈과 살덩이가 사방에 낭자했고, 그곳에 있던 세 명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잔뜩 피를 먹어 고깃덩이가 된 동료들의 시체 두 구와 바닥에 쏟아진 내장 가닥이었다. 경비원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윤곽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살 덩어리들만이 바닥에 늘어붙었을 뿐이었다. 하얀 벽에 붉은 피가 유화 물감 튀듯 작렬해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지러웠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뒤집어 일어서서 다시 엄폐물 쪽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발을 굴렀다.

내가 일어나서 등을 보이자 서버실 안쪽 복도에서 대기하던 적이 급히 총을 들어 내 쪽을 쏘는 모습이 눈에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머리 쪽으로 들고 허리를 숙이며 콘크리트 벽 뒤로 넘어지듯 들어갔다. 적은 나를 죽이려 복도 끝에서 나오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하며 온몸에 저릿한 전율이 세계 올라왔다.

탕! 탕! 탕! 탕!

파편과 먼지가 마구 튀었다. 나는 자세를 숙였다. 총알들이 얇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와 뒤쪽 강화유리창에 박혔다. 강화유리는 곧 하얀 폭포 줄기처럼 요란한 소리

DUSK (임시 제목)

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서버실 유리 뒤 사무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가 황갈색 먼지를 뽐으며 넘어졌다. 머리 위로도 살벌한 소리를 내며 총알이 박히고 지나갔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때, 반대쪽 벽에 있던 분대장이 라이트를 켜고 상체를 내밀어 복도 쪽으로 제압 사격을 가했다.

탕탕! 탕탕탕!

적은 대응 사격을 하며 복도 안쪽으로 후퇴했다. 분대장은 끝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적에게 사격을 가했다. 복도에 총알이 도탄 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때를 틈타 같이 복도를 사격하며 서버실 안쪽으로 들어갔다. 총을 복도 쪽에 겨누고 발을 최대한 빠르게 놀렸다. 지금 위치를 깊숙이 옮기지 않으면 이 총격전에 생존의 여지는 없다. 공격의 모멘텀을 잃으면 안 되었다. 나는 계속 복도 쪽으로 사격을 가했다. 내가 서버 컴퓨터 뒤편까지 들어가자, 분대장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탕! 탕! 탕! 탕! 탕탕탕!

우리는 계속 총을 쏘며 이동했다. 복도 벽에 총알이 박히며 먼지와 콘크리트 조각이 마구 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마침내 자리를 잡은 후 사격을 중지하고 입구를 겨누었다. 그곳에는 비상구 유도등에 비친 밝은 먼지 구름만이 자욱했다. 나는 긴장하고 그곳에 더욱 눈을 갖다 대었다. 그때, 복도 쪽 불이 꺼졌다. 당황스러웠다.

탁탁! 뽕그랑!

곧이어 소음기 총소리가 들리더니 서버실 한 쪽 구석 책상에 세워진 큰 램프가 깨졌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탕! 탕! 탕탕탕! 탕! 탕탕!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직감한 분대장과 나는 황급히 복도 안을 쏘며 다음 서버 컴퓨터 열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았다.

탁탁 탁탁탁!

잠시 후 적이 대응 사격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총만 내밀고 쏘는지 총알이 근처에 박힌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서버 컴퓨터 옆에 딱 붙어서 자세를 낮추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별빛이 내린 어느 중소기업의 서버실에는 음산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계속 정적만이 흘렀다. 나는 모든 감각을 적의 기척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했다. 잠시 후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타박, 타박, 타박, 툅. 부스럭... 터벅. 터벅. 뽕그랑-

가벼운 섯덩이들을 밟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분명 방금 전 교전 중 복도 입구에서 적이 사격한 총알의 탄피이다! 적도 자신이 뭘 밟은 것인지를 알아냈는지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나는 판단을 내려, 조정간을 연사로 바꾼 뒤 몸을 내밀고 총에 달린 라이트를 복도 쪽으로 쏘았다. 아나니 다들까 밝게 비친 적이 보였다. 그는 주춤한 자세로 내 쪽을 획 돌아보았다. 잠깐 그의 눈, 아니 그의 2안 야시경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눈이 부신지 야시경 앞을 가렸다. 나는 있는 힘껏 총앞을 눌러 내리며 그에게 총알을 갈겼다. 요란한 총성이 사무실을 찌렁찌렁 울렸다. 적은 총을 들어 막무가내로 쏘더니 야시경을 올리고 내 쪽으로 총구를 들어 다시 난사를 가했다. 하지만 내가 선수를 쳤고, 그는 내 사격에 제대로 맞았다. 나는 적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그 짧은 시간에 푹푹하게 보았다.

처음 몇 발은 빗나갔는지 아무 표시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은 몸을 움찔하였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의 헬멧에 총이 맞았고 그의 고개가 위쪽으로 비스듬히 돌아갔다. 그는 팔을 반사적으로 올려 머리를 보호했다. 곧 플레이트에서 희뿌연 세라믹 파편이 튀더니 그의 몸이 숙여졌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을 옆으로 틀었다. 그의 플레이트 캐리어 옆의 보호되지 않은 공간이 보였다. 나는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힘겹게 그쪽으로 총구를 옮겼다. 옆구리와 허벅지에서 피가 튀어 올랐고 그의 몸이 총 맞은 쪽으로 틀어졌다. 피를 보자 긴장이 풀린 나는 반동을 잡던 손의 힘을 빼버렸다. 총구가 확 들렸고, 나는 다시 총구를 내려 잡고 몸을 개머리판으로 구겨 넣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총은 소기를 멈추었다. 그는 복도 바깥쪽 옆으로 봉제인형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그의 땀뺀줄에 걸린 총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벽에는 검붉은 피가 크게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선혈이 웅덩이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를 느낌이 엄습하여 급히 서버 컴퓨터로 다시 몸을 넣었다. 분대장이 상체를 기울이고 라이트를 켜 적의 시체를 확인한 뒤 다시 엄폐물로 들어갔다. 나는 총을 눈앞으로 들었다. 핸드가드가 뜨거웠다. 총을 기울여보니 노리쇠가 후퇴고정 되어 있었다. 탄창 멈치를 눌러 다 쓴 탄창을 떨어뜨리고 파우치에서 새것을 뽑아 끼웠다. 그리고 다시 총을 기울여 작동부를 보며 노리쇠 멈치를 눌렀다. 가볍게 착 소리가 났다. 총 안의 길쭉한 섯덩이가 앞으로 가며 총알을 약실에 넣었다. 나는 재장전을 하며 나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아까 전에 총을 연사로 둔 것이 기억나서 조정간을 다시 단발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큰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분대장은 본부에 지원 요청 무전을 넣었다.

“TaComms, this is Saturn 6. we’ve encountered hostile forces and got friendly casualties, they are better armed than us. Requesting backup.” (본부, 새턴 6이다.

DUSK (임시 제목)

적 병력과 조우했고 아군 사상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무장 수준이 높다. 지원을 요청한다.)

“Saturn 6, copy that. QRF inbound, but the route is congested. ETA 5 minutes, over. “(새턴 6, 알겠다. 신속 대응 부대가 출발했지만 경로가 정체됐다. 도착까지 5분. 오버.)

“Roger, Saturn 6 out. “(알겠다. 새턴 6 통신 종료.)

5분이나 야시경을 가진, 쪽수도 모르는 적들과 싸워 버텨야 하다니. 앞길이 막막했다. 속이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은 노릇. 등을 보이기에는 너무 많이 와 버렸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먼치에서 잠깐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각주 TaComms: Tactical Commands. 작전 본부. Hands-Hands: 양손에 위협 수단
이 없고 비어 있는지

Prelude Two

적이 야시경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함부로 몸을 내밀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적의 사격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에 납작 붙어 머리와 총구만 내밀고 복도 쪽으로 라이트를 쏘았다. 분대장은 나를 보더니 총구를 컴퓨터 끝에 견착하고 같이 그곳을 조준했다.

딸깍.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내가 누른 스위치 소리뿐, 완벽한 정적이었다. 라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 고깔에 먼지가 밝게 비쳐 날아다녔다. 나는 더욱 시선을 총구 끝에 집중했다. 정적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유지되었을까, 갑자기 적의 팔 일부가 총구와 함께 벽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방아쇠를 살짝 누르며 움찔했다.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려는 손가락을 겨우 멈추었다. 적은 잽싸게 벽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나는 검지 손가락에 힘을 천천히 풀었다. 방아쇠가 풀리며 딱 하는 소리가 작게 났다.

왜 그는 팔에 구멍이 날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내밀었을까? 단순한 실수일까? 그렇다기에는 반응이 너무 빨랐다. 적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머리를 쥐어짜 내 생각하며 총끝을 바라보았다. 점점 한 곳에만 시선이 집중되며 멎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을 왜 내밀었지? 그럴 이유가 있나? 왜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강한 충격이 머리를 강타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가 방아쇠를 당기거나 움찔하는 것을 유도한 것은 아닐까? 내 라이트가 움직이는 궤적을 보고 내 위치와 자세를 가늠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적절한 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언제 그의 총구가 나를 향할지 모른다! 나는 그런 생각에 급히 총구를 거둬 들이고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누워 있어서 그런지 몸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빨리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다리를 컴퓨터 열 안쪽으로 놓았다. 상체를 서버 컴퓨터 뒤로 숨기려는 찰나, 적이 모습을 보였다. 그의 야시경 렌즈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총구가 내 쪽으로 들렸다. 나는 몸을 서버 컴퓨터 뒤로 던졌다. 나는 그의 총구에서 화염이 번쩍하고 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들고 있는 AK의 노리쇠가 뒤로 젖혀지는 것을 총구 화염에 비쳐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난 탄피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검은색 암막을 치듯이 컴퓨터가 가로막았고, 내 몸은 땅에 떨어졌다.

파직!

그가 쓴 총알이 서버 컴퓨터를 뚫었다. 청백색 불꽃이 밝게 튀었고 파편과 조금의 연기가 연포를 뒤로 퍼졌다. 총알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날아와 쫓혔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분대장이 몸을 돌려 총구를 적에게 향하고 총알을 마구 퍼부었다. 그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지탱하고 계속 복도로 화력을 투사했다.

타타타타타다다다당!

탁탁탁!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소음기 총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분대장의 왼쪽 등에서 불꽃이 튀더니 분대장이 내 쪽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엎드린 자세에서 반 바퀴 굴러 분대장 쪽으로 몸을 휙 틀었다. 분대장의 바로 뒤에 또 다른 적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엄지를 조정간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올렸다. 가볍게 딸깍하고 조정간이 연사로 변경됨과 동시에 총구를 적에게 갖다 대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꾸욱 눌렀다.

타타타타타탕!

타타타탁! 타타타탁!

적에게서 검은 세라믹 파편이 튀었다. 적은 몸을 뒤틀더니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계속 총을 쏘대었다. 다행히 총구가 위쪽으로 향해 있어서 누군가가 맞지는 않았다.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석면 가루가 떨어졌다. 나는 분대장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의 상체가 서버 컴퓨터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몸 전체를 컴퓨터 바깥으로 내밀음과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타타타탕!

분대장을 쏘려고 몸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었던 적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총구를 힘겹게 그에게로 돌렸다. 그의 가슴팍에서 새까만 연기와 파편이 튀어 올랐다. 나는 계속 방아쇠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헬멧에서 불꽃이 튀더니, 그는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 상체가 따라 돌며 벽 안쪽으로 쓰러졌다. 그가 서 있던 뒤쪽 벽에는 피가 조금 튀어있었다. 다시 분대장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총을 플레이트에 맞고 넘어졌던 적이 몸을 일으키고 총을 들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타타타타탕-

정신이 반쯤 흐릿해진 나는 들입다 총을 그에게 갈겨댔다. 총구 화염이 눈앞을 가렸다. 총구에서 나온 회백색 연기가 광란스럽게 주변으로 퍼졌다. 적의 피가 뒤편의 방탄유리에 마구 튀었다. 내 눈이 붉은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유리창으로 갔다. 이미 유리에는 총알이 많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방아쇠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와장창창!

마침내 방탄유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튀구는 소리가 귀를 흔들었다. 유리 조각에 파묻힌 시체 한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피에 젖은 채 까만 가루에 뒤덮여 끈적하니 알아볼 수 없었다. 몸은 군데군데 터져서 더 이상 본래의 모양이 아니었다.

나는 적의 시체에서 눈을 떼고 분대장을 바라보았다. 분대장은 시체를 한번 보더니 자세를 일으키고 복도 쪽을 다시 보았다. 잠잠했다. 나는 다시 복도 쪽을 조준했고 분대장은 어깨너머 플레이트 캐리어 밑을 더듬어 보았다. 혹시 총알에 맞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는 컴퓨터에 기대어 총을 재장전했다. 그가 재장전을 마치자, 나도 재장전을 하기 위해 총을 거뒀고 분대장이 대신 복도 쪽을 조준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총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어 천장에 커다란 하얀색 고깔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눌러 라이트를 껐다.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졌다. 나는 파우치에서 새 탄창을 꺼내 다 쓴 탄창을 갈아 끼웠다.

우리는 적이 몇 명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어 이곳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특히 방금 전 복도 끝에서 플레이트에 맞고 쓰러진 녀석은 아마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적 한 명 한 명의 생존이 우리에게는 곧 죽음이었다. 본부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Saturn 6, report status.” (새턴 6, 보고하라.)

“Two hostiles down, we’re in bad condition, running out of ammo. Cannot estimate number of hostiles. QRF ETA?” (적 둘 사살, 우리 상태가 안 좋다. 탄약이 부족하다. 적군의 수를 알 수 없다. QRF 도착 소요 시간은?)

“2 minutes. Report BLUFOR casualties.” (2분. 아군 사상자 보고하라.)

“Two, yet.” (두 명, 아직은.)

“Copy, good luck.” (알겠다, 행운을 빈다.)

“Roger, holding position until QRF arrival. Out.” (확인, QRF 도착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교신 종료.)

짧은 무전은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QRF가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전기가 번뜩이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텅 소리가 나더니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가 꺼졌다. 여러 빛깔로 빛나던 서버 컴퓨터들의 상태 표시등이 순식간에 나가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 초록색 비상구 표시등만이 빛났다. 비상등은 제 혼자만 빛나 주변을 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 도깨비불 같기도 했다. 내게 그것은 다가오는 초록빛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청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까 내 총을 맞고 쓰러진 복도 쪽 적은, 내게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동이 없는 듯했다. 그놈은 죽은 걸까? 아무래도 믿기지 않았다. 상대는 나보다 무장 상태가 더 좋다. 게다가, 끈질기고 지능적인 아까 두 놈을 보아 이 놈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곧이어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니 이상했다. 적은 왜 이렇게 공격적인 것이지? 설마 우리 인원이 2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아는 건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더라도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은 몇 명이지? 3명? 4명? 그 이상일까?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분대장이 검지를 자기 입 앞에 가져다 대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숨소리도 죽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분대장이 손바닥을 보이고 앞으로 흔들었다. 전진하자는 손짓이었다. 아까 적이 쓰러진 복도 입구에 적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우리는 컴퓨터 옆으로 재빨리 걸어나와 앞 열에 있는 서버 컴퓨터 쪽으로 붙는 것을 반복하며 계속 적이 나왔던 복도의 입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총구를 치켜들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총구가 눈앞에서 들썩었다. 잠깐 고개를 돌려 분대장을 보았다. 분대장의 얼굴은 땀에 젖어 조금 빛났다.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이 그도 매우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아무런 반격도 받지 않고 복도 입구 앞까지 다다랐다. 그 근처에 가니 비로소 처음 수류탄이 날아들어왔던 그 통로가 보였다. 우리는 입구 양쪽 벽에 붙은 뒤, 췌기를 박듯이 총구를 안으로 찌르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조금 들어가자, 우리 앞에 벽이 있었고, 양쪽 옆으로 꺾여 지른 복도가 있었다. 우리를 그리도 궁지에 몰아넣은 T자형 복도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바닥을 보니 아까 이쪽에서 쓰러진 적의 핏자국이 모퉁이를 돌아 왼쪽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이걸로 확실해졌다. 아까 그놈은 살아있다. 그놈은 용케도 소리를 내지 않고 안쪽으로 기어간 모양이다. 다만 이 자국을 따라가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부터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다.

분대장은 왼쪽 벽, 즉 모퉁이 쪽 벽에 붙어 있었다. 나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옆걸음질로 서서히 각을 열어 왼쪽 복도를 확보할 차례였다. 분대장은 이미 내 뒤편인 오른쪽 복도를 조준하고 있었다. 나는 분대장에게 내가 나서겠다고 총구로 신호했다. 분대장이 총을 접었다. 나는 왼쪽 복도를 바라보고 서서히 발을 떼어 한걸음 한걸음 움직였다. 모든 시선을 총구 끝, 아니 복도 끝에 집중했다. 그런데 너무도 깜깜했다. 라이트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한 발짝 더 떼려는 순간, 분대장이 내 옆으로 튀어나와 팔로 나를 막았다. 나는 놀라 총구를 내리고 옆걸음을 멈추었다.

탁탁탁! 탁탁! 탁탁!

그 즉시 소음기 총소리와 함께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살벌한 파열음이 귀를 스쳤다. 내 뒤쪽 벽 콘크리트에 연기와 콘크리트 조각이 마구 튀었다. 그것들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파편과 먼지가 내 뒤통수에 맞았다. 나는 어렴풋이 보이는 분대장 뒤쪽으로 빠르게 후퇴했다. 분대장은 총만 내밀어 왼쪽 복도 안으로 총을 갈겼다.

타타타타탕!

탁탁! 탁탁탁! 탁탁탁!

총알이 벽에 박히는 소리와 도탄 되는 소리가 들렸다. 분대장의 짧은 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적의 총소리가 들리며 오른쪽 벽에 또 한 번 살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분대장이 다시 내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숨은 바로 그 벽에 총을 쏘댔다. 눈앞으로 먼지가 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더니, 곧 더 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벽이 총알에 파이고 있는 것이다!

잠시 사격이 멈추었다. 그는 재장전 중일 것이다. 이때를 노려야 하나? 적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미 정신줄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발소리를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었다. 상황이 꼬였다. 아까 그랬던 것처럼 상대가 더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시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들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밀어 볼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결심이 서기가 무섭게 다시 총알이 날아왔다. 그들은 야시경이 있다. 이미 우리가 총을 내밀 기회는 뺏기고, 공격의 차례는 그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런데, 간헐적인 총소리 사이에 이질적으로 철컹하는 쇠소리가 났다. 적은 두 명이며 이리로 접근하고 있다! 한 명이 탄을 소진하자, 교대하여 다른 적이 제압사격을 계속했고, 그 사이에 재장전을 한 것이다! 내 사고가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서둘러 우리가 서 있는 죽음의 갈매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총구를 복도 쪽으로 향하고 다시 서버 컴퓨터 열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숨이 아까보다 더욱 가빠왔다. 가뜩이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시야는 더 좁아졌다. 땀이 속눈썹에 맺혔다가 떨어졌다. 분대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볼 새도 없었다.

털벌.

발뒤꿈치에 무른 것이 차여 밟혔다. 아까 전 수류탄에 희생된 동료의 잔해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피가 타일 바닥에 치대어졌는지 걸음이 미끄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했다.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장애물은 없고 서버 컴퓨터는 얼마 머지않았다. 희망의 끈을 잡은 나는 더욱 빨리 걸음

을 재촉하며 다시 앞을 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가 번뜩였다. 방금 그게 뭔가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야시경 렌즈였음을 깨달았을 참에, 나는 죽음의 선홍색 꽃이 번뜩이며 피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에는 나를 따라 잡는 것이 있다. 총알은 그 중 하나다. 총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숨이 턱 막혔다. 귀가 먹먹해지고 머리가 저려왔다. 나는 균형감각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힌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해졌다.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다리를 힘겹게 꿈틀거렸다. 일어나기 위해 무릎을 굽혔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눈앞이 오류 난 화면처럼 캄캄하게 지지직 거리며 캄캄해졌다. 누나가 물었다.

“우린 왜 살까?”

나는 조금의 생각 끝에 골목 건너편 하수구 창살 끝자락에서 간신히 멈춘 자갈 덩어리 하나를 쳐다보며 고요하게 읊조린다. 아니, 이진 골목에 앉아 있는 어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언제부턴가 우리 둘을 허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말한다. 나는 새삼스럽게 또 한 번 깨달았다.

“본능이니까.”

나는 눈을 애써 치켜뜨고 깊은 기침을 뱉었다. 눈이 번쩍 뜨이고 막혔던 호흡이 훑 들어왔다. 날카로운 이명만 들리던 귀가 확 열리더니 분대장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상체를 가까스로 일으킨 후 땀을 훑은 뒤 바닥을 더듬어 소총을 들었다. 그리고는 앞에다가 마구 갈겼다. 적의 응사가 들어왔고, 나는 더욱 격렬하게 총알을 퍼부었다.

타타타타타탕!

탕타탕! 탕탕! 탕탕탕탕!

탁탁! 탁탁탁! 타타타탁-

타타타타타타타타탕...

총에서 총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는 있는 힘껏 서버 컴퓨터 뒤로 달렸다. 적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일단 살고 봐야 했다. 내 뒤로 총알이 날아왔다. 분대장의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적들이 분대장에게 맞을까 봐 나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마침내 컴퓨터 뒤로 몸을 던졌다. 서둘러 재장전을 했다. 손이 떨려 탄창을 제대로 넣는데 오래 걸렸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라이트를 켜고 복도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복도의 양쪽 벽에서 총구 화염이 일었고 총알이 나에게 날아와 꽃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집어넣었다. 방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은 확실했다.

나는 분대장이 어딴지 살폈다. 그는 서버 컴퓨터 맨 앞줄에서 자세를 웅크리고 사격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라이트를 계속 깜빡거리며 적들이 야시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라이트를 점멸 모드로 켜고 총만 내민 후 갈렸다. 5발 쏘을 쏜 후 사격을 멈추지 않고 총구를 적 쪽으로 향하며 분대장에게로 달렸다. 다시 분대장과 떨어진다면 내 생존, 아니, 서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터였다.

라이트 점멸이 먹혔는지 나는 무사히 분대장에게로 도착했다. 오자마자 탄창멈치부터 눌렀다. 탄창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플레이트 캐리어에 손을 가져다 대었는데, 남은 탄창이 없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소총을 놓아 땔빵에 걸리게 해 두고, 권총을 뽑아 들었다. 잠시 후 분대장이 말했다.

“Reload!” (재장전!)

분대장은 총을 접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내가 분대장의 자리로 갔다. 권총 라이트를 깜빡이며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났다 했다. 적들은 내가 권총을 내민 것을 보고는 더욱 매섭게 사격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서버 컴퓨터를 뚫었다. 우리 화력은 이제 적의 화력에 비기지도 못했다. 분대장은 재장전을 마치자마자 내 어깨를 쳤다. 나는 그와 다시 교대했다. 분명히 그도 탄이 여유 있진 않을 터였다. QRF는 언제 오는지 아직 기척도 없었다.

그때, 딱 하는 소리와 쇠가 튕기는 핑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바닥에 무언가가 구르는 듯했다. 또 수류탄이라고 생각한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분대장도 총을 접고 자세를 낮췄다.

뽁-

갑자기 하얀 섬광이 칠흑 같던 건물에 번쩍 일더니 귀가 완전히 먹먹해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균형 감각을 잃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지만, 나는 엎드린 채로 땅으로 처박혔다. 머리를 들 수 없었다. 눈에는 그을음 자국이 가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적들이 다가왔다. 나는 힘겹게 적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올려다 보기는 한 건가? 적은 눈을 가리고 자리에서 휘청거리는 분대장에게 총알을 박아 넣었다. 오직 총성의 진동과 분대장이 쓰러지는 충격만이 바닥을 통해 내 몸으로 전해졌다. 탄피가 눈앞에 떨어졌다. 분대장의 피가 내 얼굴에 튀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불행하게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죽은 척을 했다. 둔해진 상황 파악 능력 때문에, 죽은 척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분대장 발치에서 이미 많이 꿈틀거린 뒤였다. 적이 내 근처에 떨어져 있던 소총을 보고는 내 땔빵에 발등을 넣고 다리를 뻗 재겼다. 총이 땔빵을 따라 멀리 날아가 딱딱한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적은 내 머리를 겨눴다. 다른 녀석이 나타나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플레이트 캐리어 가운데가

둥그랗게 해져 있었다. 이 놈이 내 총에 맞은 놈이었다. 나를 생포할 셈인가? 그때, 또 다른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적들은 세 명이었다. 그는 팔에 피가 젖은 붕대를 묶고 있었다. 이 놈이 입구 핏자국의 주인이었다. 우리를 발각되게 만든 바로 그놈 말이다. 그는 내 몸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권총마저 차낸 뒤 말했다.

“Этот салага совсем зелёный. Тащите в штаб.” (이 자식은 애송이 같다. 본부로 데려간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Есть.” (알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러시아 말투가 섞인 영어로 말했다.

“You speak English?” (영어 하나?)

“...”

“I'm not fucking around. Answer. Do you speak English?” (두 번 안 물어본다. 대답해. 영어 할 줄 알아?)

나는 회사 교육으로 배운 러시아어로 대답했다. 이렇게라도 하여 조금이라도 환심을 사야 했다. 나는 공포심에 정신이 흐릿하여 말을 더듬었다.

“Я, Я знаю по-русски.” (러, 러시아어 할 줄 압니다.)

그러자 그가 조금 고조됐지만 여전히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목청 끝에서 나는 듯한 말소리가 귀에 유독 날카롭게 들어왔다.

“Хорошо. Будешь сотрудничать - всё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 Понял?” (좋아. 협조만 잘 하면 괜찮을 거다. 알겠나?)

그는 협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으나,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최대한 굴렸다. 아직 귀에 삐 하는 이명이 가시지 않고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방해했다. 그들도 내가 뭔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러시아 놈들 중 한 명이 내 등을 발로 차더니,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내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기 시작했다.

나는 째딱째딱 묶여서 머리에 총이 겨눠진 채로 밖으로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내 앞에 가는 두 놈이 총을 치켜세우고 전방과 측면을 경계했다. 훈련이 잘 된 인원들로 보였다. 이 정도로 훈련된 병력은 더 중요한 건에 보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을 완벽히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 탈출의 여지없이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도망칠 지만 궁리 하였다.

DUSK (임시 제목)

“Давай, быстрее иди.” (어이, 빨리 가.)

빠져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걸음이 느려졌다. 뒤에서 날 잡고 있던 놈이 빨리 가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를 불쌍한 눈빛으로 흘겨보고는 힘겹게 발걸음을 뗐다. 창문 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 온다. 잔해로 뒤덮인 폐허 너머 연기가 피어오르는 먼 산을 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친 날카롭고 밝은 바늘이 눈을 찔렀다. 나는 눈을 찌푸렸다. QRF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마지막 불만의 마음이 짝트는 순간, 무전이 들려왔다.

“QRF Epsilon, inbound, AO.” (QRF 입실론이 작전 지역에 진입했다.)

일출의 빛에 붉게 비친 왼쪽 비상구 문이 벌컥 열렸다. 초면이지만 가장 반가운 대원들이 서버실 안으로 돌입하기 직전이었다.

Prelude Three

비상문 끝으로 소음기 총구 끝이 튀어나왔다. 짹 하고 박수 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와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던 러시아 요원의 머리가 들썩 흔들리더니 옆으로 비껴 쓰러졌다. 총알이 지나가며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른 러시아 요원이 즉시 소리쳤다.

“Контакт на девять!” (9시 방향 적!)

나는 재빨리 자세를 숙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맨 앞에 가던 녀석이 뒤를 확 돌아 보고는 총구를 치켜들었다. 바닥에 넘어진 요원은 몸부림치며 사무실 칸막이 뒤로 자신을 밀었다.

탁탁! 타타탁! 타타탁!

채광이 비치는 통유리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 나는 쏟아지는 유리파편을 목덜미로 받으며 필사적으로 사무실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책상, 대형 프린터, 칸막이, 유리창에 총알이 계속 박혔다. 양쪽의 총성이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러시아 요원들은 비상구 쪽으로 대응 사격을 하며 주변의 엄폐물들로 산개하기 시작했다. 나를 뒤에서 밀고 가던 녀석은 내가 총을 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고 쓰러진 녀석의 총을 발로 멀리 차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반응이 늦어져 우리 QRF의 총에 맞고 몸을 웅크리더니 바닥에 털썩 엎어졌다. 그는 몇 초간 미동이 없더니 총 맞은 부위를 꼭 누르고 화분이 세워진 기둥 쪽으로 기어가며 부르르 떨었다. 그는 쓰러져서도 총을 내밀어 옆 책상에 탁한채로 쏘아댔다. 양쪽에서 날아 오가는 총알 때문에 사무실이 뿌옇게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칸막이 건너편에서 그가 격렬히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를 의식했지만 내가 죽을락 살락 누워있는 것을 보고 시선을 돌려 그의 적에게 사격하는데 집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따라 기어서 아군 QRF 쪽으로 향했다.

격렬한 총성이 오가며 종이 조각과 나무 파편, 불꽃과 먼지 등이 마구 휘날렸다. 나는 천천히 기어가 일단 교전 사선에서 벗어났다. 다시 상황을 살피고 쏘그린 채로 허리를 숙여 아군 쪽으로 계속 움직였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발을 굴렀다. 아군과 적군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 아군은 서버실 외곽으로 끌고 들어와 넓은 각에서 화력을 투사하고 있었다. 러시아 놈들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층 전체를 울렸다.

“끄아아아! Cyka-!!”

타타타타탁!

그 이후 마지막 발악인듯 한 연사하는 소음기 총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멎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계속되는 총성이 두개골을 뒤흔드는 듯했다. 최대한 발을 빨리 움직였다.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내딛을 때마다 땅의 진동이 후들거리는 발목에 전해졌다. 나는 불꽃과 파편을 내뿜는 서버 사이를 헤쳐 QRF가 진입한 비상구 쪽으로 달리며 소리쳤다.

“Friendly! Friendly!!” (아군이다! 아군!)

내가 들어가려는 비상구 주변으로 총알이 작렬하며 벽과 문틀에 마구 박혔다. 나는 뛰다가 말고 털썩 엎드렸다. 비상구를 끼고 사격하던 QRF 대원이 총구를 내리고 뒤로 빠져 엎뻘었다. 그는 나에게 손바닥을 보이고 천천히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총구만 내밀어서 문 밖으로 비켜 주었다. 그 찰나를 노려 내달린 나는 어느새 햇빛이 조금씩 들어 차는 계단통으로 튕겨져 나오듯 달렸다. 총알이 문틀에 몇 발 더 박혔고, QRF 대원은 자세를 낮추고 다시 몸을 내밀어 대응 사격하기 시작했다. 이쪽 계단통은 우리가 들어온 쪽보다 좀 더 넓었고 옆에 채광창이 길쭉하게 있었다. 계단에는 후방 경계를 하며 대기하던 대원이 두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내 어깨에 붙은 패치를 확인하고 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홀스터에서 권총을 꺼내 약실을 확인하고는 나에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권총을 받았다. 바로 느끼기에, 그의 손은 꽤 작은 듯했다. 나는 그와 함께 주변을 경계하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층계참을 지나 한 번에 두 세 단 씩을 건넜다. 난간을 잡고 돌아 내려가며 멍멍하게 울리는 총성에 입술을 떨었다. 혹여나 적이 더 나타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방아쇠에 손을 걸고 좌우를 계속 살폈다. 폐허와 잔해로 깔린 거리는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음산한 바람이 귓가를 지났다. 우리 앞으로 내가 타고 온 것과 비슷하게 생긴 검은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멈춰 섰고, 바로 문이 드르륵 열렸다. 안에는 큰 헤드셋을 쓴, 정보 요원으로 보이는 대원이 총을 밖으로 겨누며 경계하고 있었다.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이 승합차에 올라 탄 뒤 내게 손을 건넸다. 나는 장갑 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나는 재빨리 그의 손을 당겨 승합차에 오르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내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그는 급히 허리를 뒤로 젖혀 나를 차 안으로 집어 넣었다. 승합차 문이 곧바로 닫혔고, 승합차가 출발했다. 이미 허리에 힘이 풀린 나는 그대로 좌석에 처박혔다.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이 몸을 일으킨 후 복면을 풀고 가쁜 숨을 내쉬며 본부에 무전을 넣었다.

DUSK (임시 제목)

“QRF to TaComms, Target personnel secure.” (QRF가 본부에게, 목표 인원 확보.)
웅얼거리는 소리로 무전기에서 답이 들렸다.

“Copy, good work. Check his identity and report.” (확인, 잘 했다. 신원 확인 후 보고하라.)

“Roger, circling around the building until Epsilon elements return.” (알겠다, 입실론 팀이 돌아오기 전까지 건물 주위를 돌겠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 너 누구야?”

그 역시 한국인이었다.

“...네?”

아주 잠깐동안 정적이 흘렀다.

“신원 보고 하라고.”

나는 후들후들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입을 떼었다.

“아, 이-이번 작전에 새턴 3으로 파견되- 된 2부서 파울입니다.”

그는 조용히 코웃음하는 듯 하더니 되물었다.

“코드명이 파울?”

“예 그, 그렇습니다.”

“새턴 6는? 네 분대장.”

“...죽..죽었..”

“그럼 나머지는?”

나는 소리 없이 멍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도무지 진정이 안 되었다.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크게 꺾었다. 블록을 크게 돌아 움직이며 교전 팀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는 그는 다시 본부에 무전을 넣었다.

“Saturn 1 KIA. I repeat, Saturn 1 KIA. Secured personnel is Saturn 3, his code name is Paul.” (새턴 1 전사. 반복한다, 새턴 1 작전 중 사망. 확보 인원은 새턴 3, 코드명 파울.)

본부는 다른 대원들의 생사는 궁금하지 않은 것인가? ‘목표 인원’은 또 뭐지? 내가 ‘목표 인원’인가?

“Copy, make EXFIL ASAP.” (알겠다, 신속히 탈출하라.)

“Wilco.” (알겠다.)

그는 채널을 바꾸어 다시 무전을 넣었다. 승합차가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꺾었다. 나는 문득 그를 살짝 돌아보았다. 그의 앞은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다. 얼굴은 뭔가 차가운 면이 있었다. 건물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공허해 보였다.

“Epsilon 3, you engaging yet?” (입실론 3, 아직 교전 중인가?)

“Affirmative, 1 hostile left.” (그렇다, 1명 남았다.)

“We need to leave ASAP.”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한다.)

“Roger, but the ROE should be follo-” (그래, 하지만 ROE는 지켜야-)

“Epsilon 3, come in?” (입실론 3, 들리나?)

“He’s down. We got him, ETA?” (사살 완료했다. 도착 시간은?)

“1 minute 30.” (1분 30초.)

“Copy, will leave after quick SE.” (확인, 빠른 SE 후 퇴출하겠다.)

적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의 안도감이 몸을 저리게 했다. 승합차는 속도를 조금 늦춘 채로 앞의 교차로로 향했다. 나는 멍청하게 앞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다. 오늘 새벽 동안 있었던 일이 벌써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밤에 하얗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로 날던 나방들, 어디선가 튀어나온 러시아 놈들, 그리고 피를 머금은 동료들의 시체. 분대장의 꺼져 가는 마지막 눈빛. 승합차가 마지막으로 모퉁이를 돌아 다시 건물로 돌아왔다. 건물 정문 밖으로 QRF 대원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총을 보니 정신이 다시 돌아온 나는 혹시 적이 더 올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돌연 망상에서 깨어나 승합차 뒷창문을 보았다. 그때, 큰 폭발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좌석으로 처박혔다.

과앙!

고개를 들어 폭발음이 들린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뿜뿜하게 깨진 통유리 창문 밖으로 퍼져 나왔다. 불길이 솟아 오르고 있었다. 정문에서 전투 대원들이 나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승합차 문이 열렸고, 대원들이 올라탔다. 승합차가 조금 아래로 내려 앉으며 서스펜션의 탄성이 좌석으로 전해졌다. 대원들이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들렸다. 승합차는 문이 채 닫히기 전에 출발하여 빠르게 작전 지역을 빠져나갔다. 정말로 끝이었다.

DUSK (임시 제목)

“TaComms, we are on the move from the AO. Out.” (본부, 작전 지역에서 이동하겠다. 교신 종료.)

“제대로 폭파했지?”

운전석에 앉은 대원이 전투 대원에게 물었다.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을 포함해 전투 대원은 세 명은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동유럽 쪽 사람으로 보였다.

“응, 서버실이란 사무실 위주로. 적들 시체는 다 찍었고, 새턴 시체는 모두 처리 했어.”

“음, 개들은 누구야?”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이 물었다.

“몰라, 5.45 AK이긴 하던데. 패치나 신분증 같은 건 없어.”

“으응... 애송이, 아는 거 있어?”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은 내 긴장을 풀어 주려는지 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고맙기는 하나 나는 오히려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겨우 입을 떼어 대답했다.

“..이-일단 러시아 놈들이긴 합니다. 러시아어...를 했습니다.”

“오, 그럼 정부 쪽인가?”

“모르지, 군만 아니면 된 거지. 그나저나 달랑 한 명 남을 때까지 지원 요청 안 치고 뭐한거냐?”

다른 대원이 통명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다. 우리는 계속 무전을 했는데, 자기들이 늦게 도착한 거면서.

“우리가 못 미더운가? 바로 옆 블록에서 돌고 있는데.”

잠깐, 뭐라고?

“하도 애송이들이라 무전 치는 방법도 모르나 보지.”

운전수가 귀찮다는 듯이 한 마디 붙였다. 그럼 우리 무전은 닿지 않았다는 것인가?

“너무 그렇게 말하진 말고.”

“새턴 분대장 시신은?”

정보 요원이 물었다.

“끔찍하던데. 현장 사진은 다 찍어 왔어. 러시아 놈들이 갖고 있던 USB도...”

“야. 파울이라고?”

나를 데리고 나온 대원이 말을 걸었다. 나는 혼란스러워 여러 생각을 하다 말고 급히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칼리라고 불러. 조만간 또 만나게 될 거야.”

“예, 칼리.”

칼리는 살짝 웃어 보이더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금까지 나를 조롱하듯 떠들어댄 대원은 말 없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머지 대원들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나는 혼란으로 머리가 하얗게 번졌다. 도로 옆에는 붉은색 아치형 표지판이 지옥으로부터의 첫 탈출을 커다란 노란 글씨로 배웅했다.

ІРПІНЬ

짧은 시간 안에 너무도 많은 정보와 의문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지평선 너머로 새 빨간 태양이 떠올랐다. 우리 차는 시내 외곽으로 나가 오른쪽 방향으로 크게 틀었다. 이미 부서져 잿더미가 됐지만, 옛날엔 가정집과 소박한 아파트가 아름답게 서 있었을 것 같은 골목을 지나, 점차 집은 줄고 풀숲은 늘어나는 길을 탔다. 아스팔트 길에 돌덩이가 쓸리는 소리가 났다. 불안할 정도로 좁은 길은 곧게만 앞으로 뻗어 나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본 것은 나무 밖에 없었다. 군데군데 새소리가 잠깐씩 칙칙한 분위기를 간질이는 듯했다.

이곳의 나무는 누렇게 새었지만 찰나의 녹음이 남아 있는 잎을 흔들어 전쟁에 살아 가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늦가을, 조금이라도 남은 푸른빛을 지켜 내려는 듯 이는 바람에 몸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회색인지 푸른색인지 모를 아침 하늘에는 이슬 대신 어두운 연기 줄기들이 드리워 불길함을 번지게 하였다. 운전수가 말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준비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몰랐다. 멀리서부터 외로운 파란색 표지판이 차로 다가 오더니, 다시 시내가 나왔다.

← БУЧА БОРОДЯНКА ➤

승합차는 시내를 누비며 좌로 우로 방향을 꺾었다. 멀리엔, 콘크리트가 다 까진 거대한 직육면체의 건물 뒤로 외롭게 서있는 타워 크레인도 보였다. 다시 셋길로 빠져 곧은 길을 갔다. 또 나무와 수풀만이 차에 스쳤다. 먼치에서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멍 멍하게 났다. 긴장이 풀리자 졸음이 몰려왔다. 마침 칼리가 말했다.

“우린 폴란드로 가. 곧 비행기를 타고 국경으로 갈거야. 거기서 다시 본 팀이랑 합류할거야.”

DUSK (임시 제목)

그 힘 빠진 목소리를 듣고 있자 긴장이 풀리며 잠이 쏟아졌다. 칼리의 목소리는 여러
지만 어딘가 단단한 부분이 있다고 문득 생각했다. 닫히는 눈꺼풀 사이로 창밖을 보
았다. 어느새 하늘은 연파란 색으로 물들어 귀국길은 순탄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각주

ROE: Rules Of Engagement. 교전 수칙. SE: Site Exploitation. 현장 정보 탐색.

Elevation One

이번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1년 간 현지 조사 팀 등과 동행하며 민병대, 갭단 등으로부터 팀을 보호하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임무를 주로 수행했던 나는 점점 내가 받는 높은 연봉의 대가를 은근히 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늘 위험은 위험은 있었지만 실제로 총을 쏘야하는 상황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제, 나는 낯선 나라의 어느 회사 건물에서 그 대가를 지나치게도 확실히 실감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한 권으로는 후회되지만 큰 위험에 따르는 막대한 보상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경력이라고 할 것은 특전단 전역 밖에 없는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정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감수하는 것인지를 깨닫자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까지 총 잡는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이곳의 다른 직원들보다 젊은 편이다. 전투원으로서의 비교적 빨리 군에서 나와서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돈을 좇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놓을 수 없다. 대개 고임금의 직업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뒤늦게 노력해서 겨우 이뤄낸 것은 특전단 입대 뿐이었다. 짧은 경력이지만 꽤 힘든 훈련을 나는 모두 견뎌 냈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었다.

“야, 들어 와.”

칼리가 문 안에서 머리만 내밀고 나를 불렀다. 어정정한 자세로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별떡 일어나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간편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는 안락 의자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또 다른 유리 벽이 쳐져 있는 회의실이 있었다. 칼리가 회의실 문을 가리키며 그리로 향했다. 길고 윤이 나는 회의용 나무 탁상에는 탁자의 두께만큼이나 무거워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 앉아 있었다. 칼리는 문을 열어주더니 따라 들어오지 않고 안쪽과 눈빛 교환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칼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바깥에 있는 안락 의자에 풀썩 앉더니 나를 뻗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칼리의 눈빛과 회의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에 떠밀려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다. 들어가서 다시 돌아보니 칼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Looks like you’ve gotten quite close already?” (벌써 꽤 가까워졌나 보군?)

흰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물었다. 죽히 예순은 넘어 보였는데, 지나가면서 그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예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역시 자리가 꽤 높았군. 나는 탁상 위에 놓인 그의 명패를 내려다 보았다. 본명은 없고 그의 코드네임만 적혀 있었다.

{ Jove }

아무리 가명이고 코드네임일 뿐이라도 그렇지 이름이 조브가 뭐야? 자기는 아주 젊어 보이고 개성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런데 여기는 회의실이고 나는 취조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대답부터 해야겠군.

“Sir? Ah, yes. I was shown some generous hospitality.” (예? 아, 네. 친절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Good, good... so you are the only survivor in this mission?” (그래, 그래... 네가 이번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군?)

“Yes, sir.” (네, 그렇습니다.)

“Sit please.” (앉게.)

그는 손으로 하나 남은 빈 의자 가리키며 말했다. 미리 준비한 모양이다.

“I’m sorry for your loss. All Saturn elements were good men. Saturn 6 in particular was invaluable...” (동료들 죽음은 유감이네. 새턴 분대원들은 훌륭한 부하였지. 특히 새턴 6는 귀중한 인재였는데...)

나는 동료들의 죽음에는 별 감정이 없다. 어차피 그 전날 작전을 준비하며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 그나마 경험에 많았던 분대장의 죽음에 놀랐을 뿐이다. 같이 싸운 게 뭐라고 짧은 시간에 전우애가 생겼는지, 그의 죽음은 조금은 안타까웠다.

“We need your testimony. Unfortunately, Saturn 6’s action cam was hit, so we were unable to secure the engagement footage.” (네 증언이 필요하다. 하필이면 새턴 6의 액션캠이 피격되어서 교전 영상을 확보할 수가 없었네.)

결국은 분대장의 목숨보다 그가 남긴 영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Describe the entire situatio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would you.” (상황 전체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겠나?)

나는 코로 조용히, 그러나 큰 한숨을 내쉬고, 기억을 가다듬었다. 잠깐의 정적 후, 마침내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잔인한 기억의 선율을 풀어 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들어갈 때의 뭔가 이상했던 분위기, 야시경을 가진 러시아 국적의 적들, 동료들의 허무한 죽음과 분대장의 죽음, 내가 싸우고 살아 나온 방법까지 모두 얘기했다.

이야기를 하며 매끄럽게 마감된 거대한 호두나무 회의 탁자의 나뭇결을 보거나 각 참여자의 명패를 보았다. 이야기는 지루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메스꺼웠다. 보안 처리가 된 창문으로 정오의 햇빛이 새어들어왔다. 나는 종종 잠시 말을 멈추고 그 햇빛을 마주보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자, 조브가 기대고 있던 허리를 펴고, 꼬고 있던 다리를 풀며 한숨을 쉬어 말했다.

“So, we have overlooked potential hostile contact, eh?” (우리가 잠재적인 적군 조우 가능성을 간과했군 그래?)

그러자 빨간 양복 자켓을 입은 프랑스 억양의 늙은 금발 여자가 말했다. 자기가 프랑스인인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 영어에 프랑스 억양을 섞어서 해렸다.

“The fact that the Russian contractors are involved? Not tres reassuring. They’re almost sûr, hired by the gouvernement..” (러시아 용병이 개입했다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거의 확실히, 정부 쪽에서 고용한 것 같네요.)

당연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네. 러시아 용병이고 뭐고 안전하다고 보고받은 바와 다른 상황에 나는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애써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따져 물었다.

“The ops briefing said we’re the only ones who know where the data was. Is our client trustworthy enough?” (작전 브리핑에서는 데이터의 위치를 아는 쪽은 우리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클라이언트가 믿을만 한가요?)

흰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의 단발 여성이 나서서 대답했다.

“Paul, I’m sorry about the tragedy. But you know, the only intel we can rely on come from the client, sometimes. So, what happened to the data?” (파울, 비극적인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고객으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됐나요?)

“Uhm… The Saturn elements couldn’t obtain it, but the QRF might have. I’m not sure. You could ask them…?” (그게… 새턴 분대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만, QRF가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나는 유리창 밖의 칼리와 그 옆의 일행을 고개와 어깨로 가리켰다. 칼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랩탑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에게 시선이 쏠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조브가 칼리에게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손짓을 해보이며 여자에게 말했다.

“Rachel, we'll talk about the data later.” (레이첼, 데이터 얘기는 별도로 하도록 하지.)

레이첼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납득했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Alright Paul, thanks for your cooperation, you are okay to go. We'll call you again.” (좋아 파울, 협조 고맙네. 나가도 좋다. 다시 부르도록 하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때 조브가 나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Oh, Paul, you know you have to do the AAR, right?” (아, 파울, 사후 보고서 내야 하는거 알고 있겠지?)

“Yes, I'm on it, sir.” (네, 작성 중입니다.)

사후 보고서 따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거짓말로 가볍게 넘긴 후, 나는 고개를 까딱 기울여 간단히 인사하고 유리문 밖으로 나왔다. 칼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들어가며 나에게 알 수 없는 눈짓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내가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자 조브가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복도를 돌고 돌아 형광등 빛으로 가득 찬 여러 부서를 지나서 내 자리로 왔다.

나는 어제 여러 번 죽을 뻔 했고, 나머지 세 명은 죽을 뻔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 버렸는데, 자기들은 회의실에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불러 가며 뻔하고 실 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다. 나는 여러 부정적 감정을 곱씹으며 자리에 털썩 앉았다. 의자 아랫부분의 철 봉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나며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나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내 의자를 책상 앞에 위치시키고 사후 보고서 양식을 열었다. 무의식적으로 커서를 본문 칸에 두고 작전 날짜를 넘패드로 쳐 넣었다. 그리고는 벌써 기억 나지 않는 작전 시작 시각을 확인하려고 손목 시계를 눈 앞으로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진술은 다 들어놓고 사후 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술은 왜 들어봐? 물론 사후 보고서가 나오기 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했을 수도 있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 당연히 써야 하는 AAR을 굳이 당부하는 이유는 또 뭘까? 내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일단 쉬어야 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뒤로 밀었다. 천장을 쳐다보고 있자니 어제의 일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머릿속에 도화지가 있다. 도화지 옆에서 가운데로 여러 생각이 멈추지 않고 솟아 오른다. 그것들에 대한 집중이 무뎌지고 점점 눈에 초점이 흐려질 즈음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보다는 졸린 것이 더 컸다. 꼬르륵 뒤틀리는 배는 무거운 피로에 눌러 같이 잠들었다.

DUSK (임시 제목)

...

...

“Oh, so everybody is here.” (오, 모두들 왔군.)

조브의 부름을 받고 간 회의실에는 이미 칼리와 다른 한국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나는 남은 자리 중 하나에 쭈뼛쭈뼛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쳐다보았다.

“Say hello to your new team members. Paul and Kali, you know each other, so let me introduce Mikhail.” (자, 자네들은 이제 한 팀이다. 파울, 칼리, 서로는 잘 알테니 미하일을 소개하겠다.)

조브는 미하일을 슬쩍 보더니 우리를 보며 말했다.

“He is currently an intel analyst in TF 3-6, even though I don't think you'd recognize him with his division.” (미하일은 현재 태스크포스 3-6에 있는 정보 분석가다. 소속을 알려주는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하일은 나에게 까딱 목례했다.

“Kali is involved in other operations, so Kali will only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team.” (칼리는 다른 작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자문과 지원 정도만 맡기로 했다.)

칼리는 나와 미하일을 바라보며 ‘응, 그렇대’ 정도의 눈짓을 주었다.

“The rest members will be assigned differently for each operation. For now, you're cooperating with them.” (나머지 인원은 작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배정될 것이다. 일단 이번에는 저들과 함께한다.)

조브는 늘어선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전투원들을 가리켰다. 저번에 회의실에 왔을 때 칼리와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목례했고, 그들 중 두세명이 고개를 끄덕하여 받아주었다. 확실히 칼리나 저 사람들은 나나 미하일보다는 위치가 꽤 높은 것 같았다.

조브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I will message you soon, so watch your Blackberries.” (곧 문자할테니 블랙베리나 잘 보고 있도록.)

나와 미하일이 대답했다.

“Yes, sir.” (알겠습니다.)

“Oh, you should have a team name. How about Team Kimchi? Three Koreans in one team are rare in this field, you know.” (아, 팀 이름이 있어야지. 팀 김치는 어때? 한국인 3명이 한 팀에 있는 건 우리 업계에서는 드물잖아.)

정말 김치같이 구수하고 시큼한 이름이군.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그때 미하일이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날 준비를 하며 말했다.

“Haha, I think its excellent!” (하하, 정말 좋은데요!)

나도 가만히 있기는 뭐해 격하게 동의하는 척 악센트 세계 넣어서 한 마디 붙였다.

“You’re right!” (그러게!)

문득 칼리를 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웃음짓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할 전투원들도 헛웃음을 비치며 하나 둘 일어나고 있었다.

“Alright, dismiss!” (좋아, 해산!)

조브는 덜컥 일어나 먼저 나갔다. 전투원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문을 나섰다. 나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챙겼다. 미하일도 자기 물건을 챙겨 허리춤에 켜다. 그때 칼리가 우리를 불러세웠다.

“자, 모처럼 또 같이 일하게 됐는데 한 잔씩 해야겠지?”

조금 귀찮았지만 싫을 건 없었다. 미하일도 유쾌히 승낙했다.

“아이, 당연하죠, 금요일인데!”

“그럼 이따 7시에 회사 정문 앞에서 보자.”

칼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나도 미하일에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미하일은 서둘러 따라 걸어왔지만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각주 AAR: After Action Report. 사후 보고서 Blackberry: 블랙베리 휴대폰

Elevation Two

길을 가다 말고 주머니에 손을 뻗어 핸드폰을 켜 보았다. 시간은 오후 6시 50분, 노을이 서서히 죽어간다. 나는 붉은 햇빛이 드리우는 가로수 그림자 아래로 굳이 들어갔다. 내 그림자가 가로수 잎의 그림자에 가리는 느낌이 좋았다. 나는 콘크리트와 유리로 뒤덮인 회사 건물의 회전문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는 이미 미하일이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아스팔트 위에 벽돌처럼 놓인 건널목을 따라 서둘러 차도를 건너 문 앞으로 갔다. 미하일이 내게 손을 흔들 보였다. 나는 되받아 흔들어 주고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걸어가면서 뭐라고 해야할지 잠깐의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미하일, 일찍 나왔네요?”

“하하,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다행이군요.”

나는 짓궂은 농담을 했다는 듯 웃어 보였다. 미하일도 하하 웃더니 고개를 돌려 해를 보았다. 나도 해를 보았다. 점점 붉고 어두워져 가는 하늘을 보며 잠시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가 좀 거북해 일 얘기로 말을 걸었다.

“혹시 뭐 하다 오셨어요?”

“아, 저요? 집에서 쉬다 왔죠.”

“...아, 아니, 원래 하던 업무가 뭐였냐는 거죠.”

“아하하, 죄송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정보나 긁어모으다 왔죠. 대충 OSINT 파는 일 같은 거... 아시죠? 그런거...”

“저도 요즘 일거리가 없네요. 이제 좀 생기려나 봐요.”

“세상은 난리던데...”

“그러게요...”

찬 밤바람이 내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헛, 다들 일찍 와 계시는구만!”

어떻게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칼리가 우리 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내가 당황하는 사이 미하일이 먼저 인사했다.

“어! 안녕하세요?”

나도 서둘러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깎듯이 안 해도 돼 ”

나는 조금 더 오래 봤지만 그래도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상사에게 편하게 한다는 것은 좀 웃겼다. 아마도 우리가 한국인이라 편의를 봐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입가에 웃음만 띄고 칼리의 표정을 살폈다. 칼리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했다. 그는 잠시동안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찰나의 순간에 미하일이 먼저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하하, 네..”

“음… 좋아! 그럼 갈까? 내가 가까운 데 알아봐 왔어. 열 블럭 정도만 가면 돼.”

열 블럭이면 1 마일 정도인가? 꽤 먼 것 같은데. 나는 미하일의 눈치를 봤다. 미하일은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때 칼리가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찔렸다.

“에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자는 거지.”

칼리의 말과 눈빛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아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흠…”

그는 왼팔을 위로 뻗으며 말했다.

“그럼 출발!”

우리는 관목을 스쳐가며 걷기 시작했다. 이제 해는 조금의 빛만 비추고, 길에 늘어선 가로등이 켜졌다.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우리에게로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나는 잠깐동안 서로 조금씩은 다른 차들을 보며 걸었다. 조금 젖은 것 같은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쉬익 소리가 기분 좋게 났다. 칼리가 물었다.

“아까 둘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나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열며 그를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 눈동자를 피했다. 그건 칼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하려던 말을 했다.

“그냥, 서로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얘기…”

미하일이 말했다.

“아직 파울 씨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요.”

DUSK (임시 제목)

“아하… 내가 방해한 거구나.”

“아 그런진 아니구요,”

“오, 누구누구 씨 듣기 좋다. 호칭은 이걸로 통일?”

미하일이 먼저 대답했다.

“좋아요-.”

나도 대답했다.

“좋습니다.”

칼리가 목소리를 쭉 빼며 능청스레 물었다.

“그래, 우리 파울 씨는 뭐 하다 왔는가”

“음… 주로 low risk 임무에서 전투원 겸 정보 수집 겸… 그런 일 했죠. 요즘은 일이
없다가 갑자기 죽을 뻔 했어요.”

미하일이 놀란 듯 쳐다보았다.

“죽을 뻔…?”

칼리가 설명했다.

“아, 조브가 너한테 안 알려줬구나. 있잖아, 새턴 팀 우크라이나에서 몰살 당한 거.”

“네..?”

내가 대충 설명하려고 입을 뗐다. 하지만 뭐라고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 그..”

미하일은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 칼리가 계속 말했다.

“새턴 다 죽은 거 들어본 적 없어?”

“아! 그거…”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애야.”

“어…”

그때의 상황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아졌지만 동시에 인정 받는다
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런거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때, 어차피 이제 한 팀인데.”

“아, 그런가요?”

내가 되물자 미하일이 하하 웃었다.

죽을뻔한 일이 있었어도 타지에서 드문 한국인들 만나서 팀이라고 존대받고 내가 겪은 일도 동료들 입에 오르내리니 뭔가 신기하면서 위안이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니 주변 거리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발목에 피로한 조임이 조금씩 왔다. 힘들지는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은근히 즐거워서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잠깐 생각했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과 있으면 직장 동료가 아니라 친구들과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느꼈던 듯하다. 얘기가 끊기자 칼리가 다른 주제를 제시했다.

“가서 술은 뭐 먹을거야?”

나는 사실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저는 맥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칼리가 놀라는 척을 하며 비꼬았다.

“오호오… 칵테일 바 가는데 맥주를 마신다!”

미하일이 놀라 물었다.

“네? 칵테일 바요??”

“제가 술집 찾아왔다고 말 하지 않았습니까아?”

이 양반 벌써 건망증이 오시나… 나는 은근히 통명스럽게 한 마디 쏘았다.

“칵테일바라고는 안 했었는데요-.”

칼리가 별 상관 안 한다는듯 웃으며 받았다.

“아, 그래?”

…말 안 한 거 자기도 알고 있었구만.

미하일이 말했다.

“그러면 저는 다이키리나 한 잔 하겠습니다.”

“오..”

“새콤달콤한게 맛있더라구요. 칼리 씨는 뭐 좋아하세요?”

“난… 난 그냥 올드 패션드가 좋더라..”

나만 모르는 말들이 귀에서 진동했다. 들뜬 동시에 소외감이 살짝 들기 시작했다. 칼리가 내 얼굴을 슬쩍 봤다. 대충 내 상황을 눈치챘는지 미하일이 말을 걸었다.

DUSK (임시 제목)

“그리고보니 파울 씨는 뭐 드실거예요?”

“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술에 대해 잘 아세요?”

미하일은 살짝 미안하다는 말투로 말했다.

“어… 그러게요… 어찌다보니…?”

“그냥… 많이 마셨으니까……”

칼리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입을 열었다.

“어! 여기야, 여기!”

우리가 멈춰선 곳은 다른 아닌 거대한 호텔 건물 앞이었다. 아마도 여기가 휴스턴 다운타운에서는 가장 큰 호텔일 듯 했다. 우리는 호텔 건물 1층에 붙은 스타벅스 옆을 지나 정문 앞으로 왔다. 칼리는 보란듯이 회전문을 향해 직진했다. 우리 옆으로 짐을 내리는 차들과 검은 반팔을 입은 직원들이 지나갔다. 나와 미하일은 얼떨결에 칼리를 따라갔다. 나는 누르고 있던 한 마디를 던졌다.

“저기요, 여기는 제가 상상한 술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칼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걸음을 땀다.

“자, 그럼 입장 ”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짙고 열은 갈색의 대리석 바닥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갑자기 나를 감싸는 호화스러운 풍경에 압도되는 듯했다.

“여기에 로비 바가 있어.”

“근데 이런 데 막 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될거 뭐 있어? 물론 나도 처음 올 때는 좀 뭐랄까… 압도…됐지만?”

미하일은 4성 호텔의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호화스러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없는 것 같았다.

“술만 좋으면 됐죠, 뭐.”

칼리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너무 춘티난다, 그치?”

“하하, 저는 서울 촌놈이라…”

“…나도…”

우리는 그를 따라 로비 바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눈길을 끈 것은 형형색색의 수많은 술병이 놓인 바와 그 뒤의 벽에 판 박힌 거대한 금색 세계지도였다. 우리는 바를 지나 계단 아래 기둥 옆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칼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아늑하고 분위기 있네.”

미하일 역시 주변을 보며 맞장구쳤다.

“그러게요,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다른 자리 사람들이 간간히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났다. 문득 우리 머리 위로 비스듬히 지나가는 흰 대리석 계단이 보였다.

“갑자기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조건 죽겠는데요?”

칼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 깔려 죽는 건 좀 슬픈가?”

이걸 받아줄 필요는 없는데. 나는 당황스러워서 짧게 웃었고 미하일도 뒤늦어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내가 말했다.

“웨이터 오기 전에 술이나 정하시죠…”

미하일이 웃으며 뭔가 분위기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칼리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위기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든 건 미하일이라고 생각했다.

“하하하! 그래야죠, 음… 그러면 저는 아까 정한대로 다이키리로…”

칼리는 양 손등으로 턱을 괴고 테이블 위에 세워진 안내판을 쳐다보다가 미하일의 말이 끝나자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는 사실 각테일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릴 말을 찾았다.

“…음… 그냥 칼리 씨랑 같은 걸로 할게요.”

“어허- 아까부터 자꾸?”

칼리는 양 손을 테이블 아래에 모으고 어절에 맞춰 눈을 뜨며 말했다.

“음. 자, 우리 파울 씨에게 맥일 술 정하기, 시작!”

안내판에 최면이라도 걸렸나, 갑자기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졌네. 미하일도 지금만 큰 반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하하하…”

칼리는 주먹을 쥐어 마이크를 잡은 시늉을 하고 미하일에게 겨눴다.

DUSK (임시 제목)

“미하일 씨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음..... 그 혹시 파울 씨 술이 처음이신가요?”

“음.. 완전 처음은 아니고 가끔 맥주정도 마셨습니다.”

“맨날 맥주야?”

“아뇨 그건 아니고... 바에 온게 처음이라.”

“그렇다면 코스모폴리탄 어때요?”

“괜찮다.”

“그...그게 뭐죠...? 전 우주인 하기 싫은데요...”

“아하하, 파울 진짜 각테일바 안 가봤구나?”

“하하, 하긴 파울 씨가 이런 곳에 안 올 인상이긴 하죠.”

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와 비슷했지만, 막상 두 명이 달라붙어서 나한테만 말을 거니 이것도 좀 머쓱하고 부담스러웠다. 일단 다들 웃으니까 나도 웃었다.

“일부러 안 온 건 아닌데요...”

“앞으로 자주 오면 돼, 내가 한 세 번 쯤?은 사줄게!”

“하하, 그러면 감사히 마셔야죠.”

메뉴판을 들여다 보던 미하일이 내게 물었다.

“파울 씨 단 거, 탄산 든 거 못 드신다거나 그러진 않죠?”

“어.. 뭐 네, 딱히 없어요.”

“그러면 바로 주문해도 될 것 같네요. 칼리 씨는 아까 그걸로 할까요?”

“응, 고마워.”

미하일이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거꾸로 걸린 와인잔을 정리하던 웨이터 쪽을 바라보았다. 웨이터가 정리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미하일의 시선을 느끼고 이쪽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이 용건이 있다는 눈빛을 주었고 웨이터가 이리로 걸어왔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하일이 대답했다.

“Oh, I would like to order.” (아, 주문하겠습니다.)

“Yes sir,” (말씀하세요.)

“I’d like a Cosmopolitan, a Daiquiri, and an Old Fashioned please. For our table.” (이 자리에 코스모폴리탄 하나, 다이키리 하나, 올드 패션드 하나 주세요.)

“A Cosmopolitan, a Daiquiri and an Old Fashioned.” (코스모폴리탄 하나, 다이키리 하나, 올드 패션드 하나요.)

“Yes, that’s correct.” (네, 맞습니다.)

“Would you like them to be served at once?” (한 번에 가져다 드릴까요?)

“Yes, pleas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하더니 받아적은 주문서를 가지고 갔다.

“오, 영어 잘 하는데?”

하루 이틀 일 한 게 아닌데 새삼스럽게 칭찬하는 칼리가 웃겨서 미하일과 나는 꽤 크게 웃었다. 칼리도 자기가 말하고도 웃긴지 같이 웃었다. 웃음기가 가라앉자 우리는 서로 슬쩍 무슨 말을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미하일이 말을 꺼냈다.

“아, 그래서 저희 업무는 뭔가요?”

칼리가 반갑다는 듯이 대답했다.

“음! 아마도 이번 새턴 일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

내가 물었다.

“그럼 또 동유럽 쪽으로 가나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언제가 될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네.”

“.....”

칼리가 내 어깨를 짚 치며 웃었다.

“에이 걱정 마, 거긴 다시 안 가.”

이 양반아,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다는 게 문제지, 거기를 다시 가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흐흠, 걱정 마, 죽게는 안 놔둬.”

DUSK (임시 제목)

미하일은 우리 말 끝마다 습관적으로 웃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칼리의 말이 가볍게 던진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실 없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잠깐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음음. 다들 경험은 있어?”

미하일이 대답했다.

“좀 위험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총을 쏠 일이 있던 적은 없어요.”

내 경험은 말 안 해도 다들 알 것 같아 웃고만 있었다.

“그럼 미하일 씨가 썰 좀 풀어봐”

미하일은 잠시 생각하다가 무언가 하나 떠올린 듯했다.

“음…. 아! 좀 된 일인데요, 아프리카 얘기에요.”

나는 아프리카나 중동 쪽이 열악하다고 들어서 그 쪽으로는 일부러 안 갔기 때문에 살짝 궁금하기도 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칼리가 자꾸 내 눈치를 살피길래 나도 반응을 안할 수가 없었다.

“재미있겠는데요?”

미하일은 우간다에 정보 분석가로 갔다가 민병대 간 내전에 휘말려 팀과 흩어진 애기를 했다. 7.62 AK 탄이 머리 옆으로 날아갈 때 내는 묵직한 채찍소리가 인상 깊었던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난리를 부렸다. 그는 잠시 총격이 멈춘 틈을 타 아무 차나 없어 타고 도망갔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새서 꼬박 이틀을 걷고 현지에서 뚱차를 히치하이킹해 겨우 HQ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 한 번은 케냐로 갔는데, 현지 인력과 조율이 안 돼서 차와 총도 제공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잤다고도 하며 울분을 토했다.

물론 맨날 저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적도 아래로 안 내려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와 마찬가지로 외딴 곳에서 구르고 다닌 미하일과 동질감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다. 칼리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고개를 전후좌우로 흔들며 계속 웃어댔다.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때 웨이터가 음료 세 잔을 들고 왔고, 미하일이 어서 한 잔씩 받아 우리에게 전했다.

“Oh,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나는 레몬이 꼬인 채로 발만 담그고 있는 차가운 잔을 받아들여 책상에 놓았다. 잔에는 몽환적으로 연한 선홍색 음료가 들어 있었다. 나는 슬쩍 다른 잔들도 보았다. 미하일 것은 아주 연하게 노랑고 라임이 곱혀 있었고 칼리 건 그냥 갈색 위스키 색이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혹시 다른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No, I’m fine, thank you.”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하는데- 푸흠...”

“그거 아까 써먹었잖아요.”

별로 재미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또 서로 숨죽여 한참 웃었다. 미하일이 아직 웃음기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파울 씨, 우주의 맛이 어떨까 한 번 마셔 보세요.”

“아, 네, 하하.. 그럼, 먼저...”

“어! 어, 마셔, 마셔.”

나는 차가운 잔의 다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다 댔다.

“오, 폼 나는데.”

입술에 시원한 느낌이 저릿하게 왔다. 맛은 은근 기대했던 것처럼 새콤달콤하지는 않았다. 청량하고 향긋하면서도 조금 씹쓸한 샘물을 마시는 기분이었다. 술이라는 맛도 냄새도 심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거 괜찮은데요.”

칼리가 웃어 보이며 말했다.

“입에 맞다니까 다행이네-.”

미하일은 우쭐한 척 엄지를 자기를 향해 치켜세웠다.

“하하하, 제 축이 어떻습니까!”

칼리가 능글맞게 치켜세우며 받아 줬다.

“좀 하는데? 칵테일 많이 마셔 봤나본데?”

“칵테일이 취미라서요.”

미하일은 웃으며 대답을 마치고 자기 잔을 한 모금 기울였다. 이제 내게 질문이 올 차례라는 것을 알아채고 내 잔을 집으려는 순간 칼리가 물었다.

“괜찮네. 그럼 파울 씨는 취미가 뭐야?”

굳이 말하자면 글 쓰는 것, 영화 보는 것 정도가 있었다. 나는 그 중 무얼 말할까 고민하다가, 나에게 대한 얘기로 화제가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침대에서 뒹굴면서 아무 것도 안하면 그게 여가죠.”

“오… 나도..! 사실 따로 뭘 하기가 피곤해.”

미하일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맛장구를 쳤다.

“저도 평소에는 그래요. 놀려고 해도 힘이 나야죠, 하하.”

무언가 대화를 계속 진행시키려는 어색하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오갔지만 그러면서도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슬슬 아이스브레이킹은 끝나가는 듯했다.

나는 대화를 계속하며 두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았다. 미하일은 말 하는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셔서 잔을 비교적 빨리 비웠다. 칼리는 처음에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잔을 드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나도 내 술 맛이 나쁘지 않아서 꽤 자주 잔을 들었다. 내 것은 맛은 맑고 술 냄새도 별로 안 나서 순한 줄 알았는데 한 잔 마시니 슬슬 취기라고 할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하일이 떠들고 칼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자 나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어 결국 한 잔을 더 시키게 되었다.

칼리는 내가 술을 잘 하는가보다며 치켜 세웠다. 미하일은 다음으로 ‘잭 로즈’를 추천했다. 나는 그저 받아들였다. 미하일은 자기가 뭔가를 보여준다면 무슨 아이스티를 시켰다. 바에도 아이스티를 파는지는 처음 알았다. 칼리는 술 안 먹고 아이스티나 시키냐고 미하일을 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하일의 간이 세다고 놀라워하며 웃었다.

슬슬 늦저녁이 되며 사람들이 로비 바에 하나 둘 들어와 곧 봄비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 웅성웅성하면서 잔잔한 공기에 따라 무르익은 분위기를 타고 조금 편히 얘기를 하는 듯 했다. 나도 이제는 그냥 웃고 즐기고 넘어가기로 했다. 미하일이 시킨 건 아이스티가 아니라 또 다른 술이었다. 그가 추천해 준 두 번째 술도 마찬가지로 술 냄새나 맛이 세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레몬인지 라임인지 새콤달콤한 맛이 좀 더 있었다. 나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서 좀 열심히 마셨던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안 마신 것 뿐이지 나도 마시면 잘 마시는 것 같아.

Elevation Three (미완성)

여느 때처럼 누나는 해가 지는 초저녁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낙엽, 전신주, 아스팔트 바닥, 그리고 그를 천천히 번갈아가며 봤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듯했다. 나는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은근히 드는 생각은, 누나도 이런 상황을 좋아할지였다. 화제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뭐라고 말할지 정한 바는 없었지만 어쨌든 입은 열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누나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행복은 뭘까?”

누나는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본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도 평범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나도 궁금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싫지 않았다. 그런데 저렇게 넓은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다. 누나는 내가 말을 하지 않자 말을 이었다.

“행복은 찾는 걸까? 내가 행복을 찾을 줄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나는 누나가 비판해주길 원했는지, 평소 귀 아프게 들던 말을 꺼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라는데...”

그런데 말 하면서 생각해 보니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의 근거로는 매일을 불우하게 사는 대륙 건너편 사람들이 들어지곤 한다. 또는 몸이 아프게 된 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예시도 있다. 나도 그들보다 내가 사정이 낫다는 것은 알고 있다. 역시 나는 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걸 그저 복에 겨운 소리인가?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바도 조금은 있는건가?

...

나는 하얀색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눈뚜껑을 열었다. 잠시동안 주변을 흐릿하게 보고 다시 눈을 감으려고 했으나,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뒹집었다. 침대 앞 거울에 어제 입고 나온 캐주얼 카고 바지와 셔츠를 그대로 입은 내가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 나는 작은 호텔 방 안에 있었다.

줄린 기색이 다 사라진 채 벌떡 일어나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신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있는 겹옷과 거울 앞 책상에 놓인 핸드폰을 쟁긴 뒤 문간의 키카드를 뽑아 방을 나섰다. 복도는 아침의 습기로 눅눅하면서도 어딘가 아늑한 냄새가 났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켜 보았다. 스카이프에 칼리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뭘 안 했으니까 체크아웃 하고 잘 들어가 ㅎㅎ’ ‘돈은 내 났어’

젠장. 분명 어제 좋다고 술을 퍼마시다가 그대로 엎어진게 분명하다.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적잖이 쪽팔린 꼴이 아니다. 출근하면 두 사람 얼굴 어떻게 보지? 계속해서 어제 일을 떠올려보려고 노력하니, 내가 미하일의 부축을 받고 로비 바 밖으로 나오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랫배 속에서 탄식과 비명이 나왔다. 이제 내가 내 민폐를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어제 갔던 로비 바를 훌쩍 쳐다보며 밖으로 나왔다. 휴스턴의 아침 햇살이 화사했다. 먼저 칼리와 미하일에게 어제 미안했다, 덕분에 잘 들어갔다는 문자를 넣었다. 나는 칼리에게 뭐라고 더 쓸까 하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걸음을 옮기는 내 다리를 내려다 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걷기 위해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 정신의 깊이는 어딘가에서 머리의 빈 공간으로 오늘 꿈의 끝을 밀어 넣었다.

본래는 아주 드물게 꾸던 어릴적 꿈을 최근 그 일 이후로 벌써 두 번이나 꾸었다. 누나가 나오는 꿈에서 일어난 일들은 실제로 언젠가 있었던 일인 듯하다. 내가 그와 무슨 대화를 했고 그게 내 삶과 사상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정말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다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에 잠길 때나 꿈을 꿀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한다. 그러면 다시 코앞에 할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한다.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그는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장하곤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나는 내 그림자를 가리는 가로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멍하게 보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꿈에서 누나가 내려 준 결론을 싸고 도는 의미 없는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향했다. 머리 위로 눈알이 이상하리만치 밝은 새가 검은 꼬리를 치며 무심히 날아갔다. 나는 새를 눈으로 쫓다가 가시 돋친 해를 잠시동안 쳐다보았다.

...